디지털 전환시대 맞아 '내가 살아가는 장소' 중요
보행생활권·융복합 토지이용체계 과감히 고쳐야

도시, 기후위기·감염병·디지털전환 등 전례없는 위기이자 기회에 직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과 성장으로 대응해오던 도시는 최근 처음 겪어보는 위기와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비롯된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확장된 감염병, 기술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그것이다. 기후위기는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 산업, 사회 문제를 함께 다루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환경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확대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감염병은 단순한 의료적 대응이 아닌 사회보장제도, 공중보건인프라, 기초과학기술투자, 도시계획적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새로운 도시·사회적 기준이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구조 변화를 시작으로 개인의 일상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위기는 지역과 분야, 계층을 막론하고 동시다발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위기가 불러올 근본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혁신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도시, '초개인화·초연결화·초맞춤화'가 핵심인 뉴노멀시대로 진입 예상

디지털 전환은 산업 및 금융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분야에 더욱 빠르고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1980년대에 그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제품이 출시되며 시작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도구가 등장하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개인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시장이 창출되고 휴

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때마침 확대된 소비문화와 온라인 네트워크가 결합하면서 온라인 기반의 시장이 성장하였다. 2004년 이후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환경이 일반화되고 관련 서비스가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초개인화와 초연결화 현상이 확산되었고, 이는 업무, 교육, 소비, 주거, 이동 등 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디지털 전환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면서 지역과 연령의 경계 없이 시민의 일상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디지털환경과 비대면사회에 사회구성원이 모두가 반강제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뉴노멀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맞이한 뉴노멀 시대에는 '초개인화(Hyper Personalization)', '초연결화(Hyper Connectivity)', '초맞춤화(Hyper Customization)'가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3차원 환경이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반영되어 국경, 지역, 시간, 공간의 경계를 극복하는 '초연결화' 시대는 개인 중심의 삶이 중요한 '초개인화' 현상과 결합하여,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공간과 시간'이 가장 중요한 '초맞춤화' 시대를 열었다. 즉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주거, 여가, 이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들의 최근 변화 양상을 통해 도시공간의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뉴노멀시대엔 일자리, 주거, 여가, 이동 등 시민일상이 구조적 변화

① 일자리는 분산되면서 다핵화되는 경향, 업무와 문화여가의 연계성 중요

일자리는 최근 광역거점과 수도권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분산되는 다핵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리모트워크가 증가하며 일반 업무기능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거지 중심의 거점도 확대될 전망이다. 창조·혁신산업은 먹고 놀고 쉬는 장소와 융합되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와 문화여가공간의 연계성은 MZ세대의 진입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② 주거는 기능이 다양·복합되며 면적, 구조, 입지 등 질적 향상과 개선 전망

주거는 비대면을 활용한 재택근무, 온라인 상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 면적은 소형화 추세에서 다양한 규모로 확대 조정되고, 융복합된 주

거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와 형태로 조정되는 등 주거의 질적 향상과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소비활동이 중심지에서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함에 따라 동네 단위의 생활권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중심으로 분산·발전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③ 여가문화는 삶의 중심으로 이동, 동네 단위와 녹지·수변 관련 활동 증가 예상

여가문화는 삶의 중심 키워드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네 단위의 문화여가활동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되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여가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개인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원과 수변 중심의 여가활동 증가가 예상된다.

④ 이동은 단거리 중심으로 변화, 3차원 통합교통체계로 진화하며 입체복합 추진 필요

이동은 단거리 중심으로 통행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래교통은 스마트 교통혁신에 따라 지하, 항공, 수상 등 3차원 통합교통체계로 진화하고, 주요 거점은 입체복합화가 추진되어 중심지 기능 고도화와 함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확 달라지는 일상에 선제 대응하도록 도시공간 개편정책 추진 필요

① 서울 중심에서 대도시권과 동네생활권으로 공간단위 개편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화와 다핵화가 진행 중인 중심지 체계를 3차원 스마트교통체계와 연계하여 거점 간 직결체계를 구축하고 입체복합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활동을 도보권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350여 개의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지역, 생활기반시설, 공원·녹지·수변공간을 재편하여 서울시 전역이 보행자족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융복합적 토지이용체계 마련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간 배타적인 토지이용체계를 융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바꾸기 위해 용도지역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도심주거, 고밀주거, 중단기 체류형 주거, 저층주거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고밀도를 지향하는 상업

지역은 일자리와 문화여가공간의 융합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용도가 특화되고 다양한 밀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준)공업지역은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융복합산업으로 재편되고, 녹지지역은 생태환경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증가하는 시민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③ 라이프 플랫폼으로의 녹지·수변 공간 강화

여가생활이 삶의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활권 공원과 수변공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산책, 휴식 등 소극적 여가활동장소였던 공원·녹지는 일상에서 즐기는 적극적 여가활동 중심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지·수변으로의 접근성 강화, 문화여가시설과의 연계 등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수변·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④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미래교통이 도로 상부공간과 지하, 하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교통체계로 진화하면서, 지상공간은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중심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증가하는 개인교통수단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